

LG생명과학, 신약 개발효과 기대

신한증권, 간질 환치료제 개발성과 가시화 전망 ... 제약사업 활성화

LG생명과학이 활발한 신약 개발을 통해 제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LG생명과학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시장성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길리어드로 기술 수출한 간질환치료제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 단계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 LG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질환치료제의 신약 가치를 주당 1만8196원,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의 가치를 주당 3439원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0>